베트남의 도이머이(刷新)정책과 베트남사의 재해석

Doi Moi and the Reinterpretation of Victnamese History

劉 仁 善*

베트남 역사학계가 베트남역사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곳 역사학계의 연구가 공산당의 정책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歷史家 개개인의 관심이나 견해는 역사연구의 방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역사가의 임무란 오직 黨의 현재 정책이 역사상에는 어떻게 나타났었는가를 설명하여 그 정책의 수행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베트남 역사가의 이러한 임무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노이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중의 한 사람인 반 따오(Van Tao)교수가 1988년 파리 7대학에서 한 연설을 실례로 들 수가 있다. "우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의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역사를 쓰는 것이다."[1]

공산당이 역사학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하노이 사학계가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하는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 오늘날 베트남 역사학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국가사회인문과학중심(Trung Tam Khoa Hoc Xa Hoi va Nhan Van Quoc Gia) 산하에 史學院(Vien Su Hoc)이 있다. 사학원의 전신은 歷史地理文學研究班(Ban nghien cuu Lich su, Dia ly, Van hoc)으로 1953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이의 설립을 제창한 사람은 당시 공산당의 제1서기였던 쯔엉 찐(Truong Chinh)이었는데, 그가 이를 제창한 주요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당의 혁명노선을 배워 항전과 구국이라는 당면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약칭 史地文研究班은 처음부터

---

*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1) Hugues Tertrais, "Un état des recherches sur l'histoire du Vietnam,"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40 (Oct.-Dec. 1993), p. 98에서 인용.

중앙당에 직속되어 당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되었다.[2] 1954년 7월의 제네바협정에 의해 하노이에 복귀하기 전 프랑스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소련식 일당통치체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역사연구를 당이 주도하도록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3] 현재는 이러한 일당통치체제에 약간의 틈새가 엿보인다고 하지만,[4]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공산당이 역사연구의 방향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刷新)정책을 채택하자 그것은 즉각 베트남 역사학계의 연구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쇄신정책의 어떤 점이 역사연구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며, 또 새로운 연구는 종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면서 아울러 베트남 사학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쇄신정책의 주요내용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으로, 1970년대 후반 이래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80년대 초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신경제정책을 대폭 확대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었다. 이와 아울러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이기는 하지만 종교, 언론, 출판 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이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그것이 공터가 아니라 역사적

2) Van Tao & Nguyen Quang An (eds.), *Ban Van Su Dia (1953-1959)*, (Hanoi: Vien Su Hoc Viet Nam, 1993), p. 4. 역사지리문학연구반은 기관지로 『文史地』(Van Su Dia)를 1954년 6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 초에 이르러서는 그간의 연구의 다양화에 따라 세 분야가 각각 분리되면서 사학원이 만들어 졌다. 『文史地』도 이름이 『研究歷史』(Nghien Cuu Lich Su)로 바뀌어 역사전문잡지가 되고 사학원이 그 발간책임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1954년 하노이 정부의 공식 국가명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이었으며, 당의 명칭도 베트남노동당이었다. 이들 명칭이 지금과 같이 각각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베트남공산당으로 바뀐 것은 1976년에 이르러서였다. 처음의 명칭들은 공산당이 베트남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하노이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고 현재의 이름들을 사용하였다.

4) Carlyle A. Thayer, "Political reform in Vietnam: Doi Moi and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pp. 110-129.

유산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대체 역사적 유산이란 무엇이며, 그 중에서 계승하여 발전시킬 것과 저버릴 것은 각각 어떤 것들인가? 여기에서 역사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역사유산을 연구하고 평가해야 할 임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5]

문제는 역사유산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동시에 이들 모두를 연구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연구역사』지의 편집자는 경제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 농민, 농촌, 생산력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6] 이는 쇄신정책이 채택되게 된 주원인이 197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이 겪었던 농업생산의 저하와 그로 인한 극도의 식량난 때문임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구역사』편집자의 이러한 언급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연구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후 베트남 사학계의 연구는 쇄신정책과 연관되어 역사유산에 관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종전에 성행하던 대외항쟁사라든가 농민운동 등에 대한 연구는 『연구역사』에 발표된 아래의 논문숫자에서 보듯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연구역사』에 발표된 주요 분야에 관한 논문수[7]

	1964-69	1969-74	1974-79	1979-84	1987-89	1989-92
대외항쟁사	110	49	44	60	63	29
농민운동	32	8	9	10	10	3
인물사	90	40	42	45	26	74
경제사	13	2	24	38	31	30
문화 및 사상사	19	19	21	13	34	20

5) Nghien Cuu Lich Su, "Di san lich su voi diem xuat phat di len chu nghia xa hoi cua chung ta"(우리의 사회주의 길로의 출발점과 역사유산), *Nghien Cuu Lich Su* (이하 *NCLS*로 약함), vol. 232-233(1987. 1-2), pp. 1-2.

6) 위의 논문, p. 1.

7) Hoang Hong, "Mot so van de ve lich su su hoc"(사학사에 관한 몇가지 문제), (1994년도 하노이대학 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이 논문의 요약문 p. 8의 도표에 의함. 1984-89년 사이에 대외항쟁사논문이 많은 것은 『연구역사』214호(1984. 1-2), 220호(1985. 1-2) 및 240-241호(1988. 3-4)가 각각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응우옌 후에(Nguyen Hue, 阮惠), 對蒙抗爭에 관한 특집으로 꾸며졌기 때문이다. 1984년 이전까지의 인물연구는 주로 대외항쟁과 관련된 이른바 민족의 영웅들에 관한 것이었으나, 최근의 연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역사상 개혁을 주장했던 이들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 연구내용상 차이가 있다.

역사연구에서 쇄신문제가 베트남 사학계의 주관심사가 되고 있음은 『연구역사』 258호(1991. 9-10)가 "역사학과 도이머이"(Su Hoc va Doi Moi)라는 주제의 특집호인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특집은 하노이대학 사학과의[8] 창립 35주년(1956-1991)을 기념하기 위해 동대학 사학과와 『연구역사』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 두 기관은 베트남 사학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곧바로 베트남 사학계를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특집에서는 역사연구가 쇄신정책과 일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베트남역사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집중 연구되어야 할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풍 호우 푸(Phung Huu Phu)는 역사가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과제로 다음의 네 분야를 들고 있다. 첫째로 그가 중시하는 것은 경제분야다. 쇄신정책의 주요 당면과제가 경제문제의 해결인 만큼 경제사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근대에 들어와 경제개혁을 주장했던 인물들인 응우옌 쯔엉 또(Nguyen Truong To), 응우옌 로 짜익(Nguyen Lo Trach), 판 쭈 찐(Phan Chu Trinh)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둘째는 정치와 사회에 관한 문제로, 그는 전통사회에서의 지식층, 민족의 공동체의식, 계급간의 연대의식, 각 왕조의 존재의의와 역할과 같은 종래 관심 밖이었던 대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본질문제로, 베트남 고유의 문화적 요소와 함께 외래문화의 영향도 동시에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그는 한 민족의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웃 민족의 것과 비교함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이웃 나라들의 역사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9]

풍 호우 푸의 이러한 제의는 그 때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史學院과 하노이대학 사학과의 분위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사실상 현재 베트남 사학계의 연구주제들은 그가 제시한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지금 연구되고 있는 주요 대상을

8) 하노이대학 사학과(Khoa Lich Su)는 우리나라의 사학부에 해당된다. 사학과는 고중대사, 근현대사, 당사, 세계사, 사학방법론, 고문헌학, 고고학, 민족학의 8개 부문(Bo Mon, 우리의 學科)으로 구성되어 있다.

9) Phung Huu Phu, "Cong cuoc doi moi va nhung van de dat ra doi voi su hoc" (쇄신정책과 역사학에 주어진 제문제), *NCLS*, vol. 258(1991. 9-10), pp. 2-4.

보면 정치와 정치개혁가로서 호 뀌 리(胡季犛, Ho Quy Ly, 1335-1421?), 응우옌 쯔엉 또(阮長祚, 1828-1871), 판 쭈 찐(潘周楨, 1872-1926), 그리고 순수 경제관계로는 17,8세기의 상공업과 대외무역이다. 왕조의 재평가라는 점에서는 응우옌왕조(阮朝, trieu Nguyen, 1802-1945)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민족의 공동체의식과 관련되어서는 종래의 계급간의 갈등이라는 측면보다 상호부조가 강조되고 있다. 이점은 특히 촌락공동체를 다룰 때 더욱 그러한데, 과거에 논의되던 토지소유의 多寡問題에서 개개 촌락의 형태, 촌락이 공유하는 풍속, 습관쪽으로 연구가 바뀌는 경향이다. 사상과 종교면에서는 유교, 불교, 천주교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재평가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이웃나라의 역사연구는 주로 쇄신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서구접촉과 개혁에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연구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인물은 호 뀌 리이다. 호 뀌 리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연구역사』지가 1990년(235호)과 1992년(264호) 두 차례에 걸쳐 전례없이 시간적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그에 관해 특집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명백하다. 호 뀌 리에 관한 집중적 연구는 상기한 『연구역사』 1990년의 특집호 제목을 "호 뀌 리改革"(Cai Cach Ho Quy Ly)으로 했듯이 그가 취했던 개혁정책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호 뀌 리에 대한 평가는 종전 세 가지로 나누어 졌었다. 첫째는 그가 진보적이며 확고한 개혁가로, 쩐왕조(陳朝, trieu Tran, 1225-1440) 말의 경제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려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둘째번 평가는 이와 달리 완전히 부정적으로, 그는 쩐왕조의 찬탈자이며 탐욕적 독재자라는 것이다. 그의 정책은 새로운 통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였으며 인민의 소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세번째 평가는 위의 두 가지 견해의 중간적 입장으로, 호 뀌 리의 개혁정신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개혁에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0]

10) Phan Huy Le, "Cai cach cua Ho Quy Ly va su that bai cua trieu Ho" (호 뀌 리의 개혁과 胡朝의 실패), *NCLS*, vol. 264(1992. 9-10), pp. 2-3; Vu Minh Giang, "Thu nhin lai nhung cai cach kinh te cua Ho Quy

195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사학계는 호 꾸 리의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1970년대 들어와서의 공식적인 견해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었다. 1971년 베트남사회과학위원회가 편찬한 『베트남역사』의 제1권을 보면, 호 꾸 리는 대담하지만 탐욕적인 인물로, 그의 정치적 중앙집권화개혁이나 쩐왕족의 토지소유제한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없지도 않으나, 아직은 사회의 발전추세라든가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또 明의 침입을 막지 못해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였다.[11]

지금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호 꾸 리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베트남역사학회 회장으로 현재 사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판 후 히 레(Phan Huy Le)교수는 그의 개혁이 정치, 국방,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를 베트남 역사상 제일의 개혁가로 꼽고 있다.[12] 레교수에 의하면, 호 꾸 리개혁의 목적은 관료군주집권제도의 강화와 사회경제적 모순의 해결이라는 것이다. 첫번째 목적을 위해서 이전까지 부정기적이던 과거시험을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한편 지방에 각급학교를 증설하고, 아울러 관제와 형률을 반포하여 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두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귀족계급의 토지사유화를 제한함으로서 그들의 세력을 억눌러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자 하였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限田法과 限奴法의 실시였다. 丁稅를 폐지하고 토지소유의 다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농민부담을 경감시킨 것 역시 중앙권력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明의 침입에 의해 성공을 보지 못했지만 1428년 레왕조(黎朝, trieu Le, 1428-1788)의 성립과 더불어 재실시되어 타인 똥(聖宗, Thanh Tong, 1460-1497)에 이르러서 확립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당시의 역사적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13] 그러

Ly"(호 꾸 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재인식), *NCLS*, vol. 253(1990. 11-12), p. 3; John K. Whitmore, *Vietnam, Ho Quy Ly, and the Ming (1371-1421)*,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 Studies, 1985), pp. vii-ix.

11) Uy ban khoa hoc xa hoi Viet Nam, *Lich Su Viet Nam* (Hanoi, 1971), tap 1, pp. 230-235.

12) Phan Huy Le, 앞의 논문, p. 6.

13) Phan Huy Le, 위의 논문, p. 6; Nguyen Canh Minh, "Vay y kien xung quanh van de danh gia Ho Quy Ly"(호 꾸 리 평가문제를 둘러싼 몇가지 견해), *NCLS*, vol. 264(1992. 9-10), p. 26.

나 그의 개혁내용이 어떠했던 간에 호 뀌 리가 쩐왕실과 겹겹이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분명히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했음이 틀림없고, 이로 보건댄 그의 개혁에는 자신의 세력강화라는 사적인 면도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된다.

호 뀌 리가 명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도 재평가되어, 저지의 실패는 사회경제적 위기의 해결과 외침 사이에서 독립의 유지를 위해 민족의 역량을 충분히 결집시킬 수 있기에는 힘이 부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애국심과 침략을 저지하려 했던 결연한 의지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온존하는 가운데 민족의 결집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 강력했던 明 永樂帝의 베트남을 침략하려는 의지는 확고하였으므로[14] 그 저지의 실패를 호 뀌 리에게만 돌렸던 과거의 평가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여하튼 호 뀌 리에 대한 평가를 지난 날과 달리 완전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려는 경향은, "사료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쇄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쯔엉 호우 꾸인(Truong Huu Quynh)의 주장을[15] 상기시킨다. 꾸인의 말은 역사해석에서 중요한 객관성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는 하노이 사학계의 한계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호 뀌 리 다음으로는 응우옌 쯔엉 또가 개혁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88년 발행된 쯔엉 바 깐(Truong Ba Can)의 저술, 『응우옌 쯔엉 또--人物과 遺稿』가 호찌민市의 漢喃研究所(Trung Tam Nghien Cuu Han Nom)에 의해 1991년 재발행됨과 동시에,[16] 그의 사망 100주기를 기념하여 같은 해 이 연구소가 "응우옌 쯔엉 또와 국가개혁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은[17] 그에 대한 베트남 사학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14) 山本達朗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東京 : 山川出版社, 1975), p. 157.
15) Truong Huu Quynh, "Nhin lai van de Ho Quy Ly trong lich su"(역사속에서 호 뀌 리 문제의 재인식), *NCLS*, vol. 264(1992. 9-10), p. 19.
16) Truong Ba Can, *Nguyen Truong To--con nguoi va di thao*, tap I-III (Thanh Pho Ho Chi Minh: Trung Tam Nghien Cuu Han Nom, 1991).
17) Vien Khoa Hoc Xa Hoi & So Van Hoa Thong Tin, *Nguyen Truong To voi van de canh tan dat nuoc* (Thanh pho Ho Chi Minh: Trung Tam Nghien Cuu Han Nom, 1992).

응우옌 쯔엉 또는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고, 후일 프랑스인 선교사로부터 서구의 문화와 과학을 배운 다음 1860년에는 로마와 파리를 여행할 기회도 가졌었다. 1863년부터 1871년 사망할 때까지 지방관으로 근무하며 정치, 외교, 군사, 교육, 농업, 과학기술 등의 개혁에 관해 58 차례에 걸쳐 상소문을 올렸다. 개혁안의 골자는 관직의 축소, 행정과 사법의 분리, 근대식 군사학교의 설립, 한자의 폐지와 베트남어의 로마字化, 지배계층에의 增稅, 사치품에 대한 관세인상 등이었다. 그의 이러한 개혁정책을 놓고 1960년대 초 하노이 사학계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보면,[18] 일부는 그가 진보적 애국주의사대부로 베트남의 위대한 영웅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그를 保皇派로 민족정신이 결여되어 있었고 선교사에 봉사하는 영토분할의 입론자로 평가하고 있다. 후자에 의하면, 그는 기껏해야 개혁주의자일 뿐 혁명가는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점증하고 있던 사이공정부와의 긴장관계가 고려된 때문이었다. 그 후 베트남 사학계의 입장은, 그가 비록 서구의 방법을 모방하려고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국에 봉사하려는 열망에서 민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었다.[19]

지금에 와서는 응우옌 쯔엉 또가 19세기 후반의 가장 위대한 개혁론자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베트남 사학계가 응우옌 쯔엉 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반 따오교수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응우옌 쯔엉 또를 진보적 애국자로 높이 평가하면서, 당시에는 혁명보다 개혁정신이 팽배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판 쭈 찐은 물론 청년시절의 호찌민조차도 개혁주의의 경향이 강했음을 실례로 들고 있다. 반 따오교수는 또한, 응우옌 쯔엉 또가 생산능력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생산능력이 발전되어야 民이 富하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으며 그래야만 민족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였다.[20] 그의 개혁방법은 호 꾸 리와 비교하더라도 모든 면에

18) Van Tao, "Nguyen Truong To, nguoi mo dau cho mot dong yeu nuoc co xu huong canh tan o thoi can dai" (응우옌 쯔엉 또, 근대에 개혁을 지향했던 애국집단의 선구자), *NCLS*, vol. 265(1992. 11-12), pp. 9-10.

19) Uy Ban Khoa Hoc Xa Hoi Viet Nam, *Lich Su Viet Nam*, tap II (Hanoi: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1989), pp. 61-62.

20) Van Tao, "Nguyen Truong To," *NCLS*, vol. 265, pp. 10-11.

서 보다 논리정연하며 민족적 내용과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21] 두 사람의 구체적인 개혁내용만을 비교할 때 반 따오교수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자가 처했던 시대적 배경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는 것으로 올바른 비교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의 쇄신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이를 준거로 역사적 사실들을 무분별하게 평가하려는 데서 생긴 오류가 아닌가 한다. 한편 응우옌 쯔엉 또의 개혁안은 당시 지배계층에게 일대 타격을 주는 것으로 그 실현성도 의문시되는 면이 있었음을[22] 고려할 때, 이 점 그의 평가에서 어느 정도 참작되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개혁주의자로 새로이 평가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판 쭈 찐이다. 1900년대 초기에 판 보이 쩌우(潘佩珠, Phan Boi Chau)와 더불어 민족주의운동의 쌍벽을 이루었던 그는 종래 하노이 사학계에서 애국주의자로 높이 평가되는 한편, 다른 일면에서는 프랑스와 협력하여 베트남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개량주의의 입장에서 무장폭동을 통한 프랑스의 축출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었다.[23] 최근에는 그의 점진적 개혁방법이 당시 베트남 사회에서 보다 적절했었다고 보는 경향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24] 근대화가 우선이라는 판 쭈 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했다고 생각되지만,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는 데에 이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다.

쇄신정책의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착실한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분야는 17

---

21) Van Tao, "Tu Ho Quy Ly, nhin lai mot so cai cach trong lich su" (호뀌 리 이후 역사에서의 개혁들에 대한 재인식), *NCLS*, vol. 264(1992. 9-10), p. 11.

22) David J. Steinberg (ed.),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Revised Ed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p. 137.

23) *Lich Su Viet Nam*, tap II, pp. 121-122; William Duiker, "Hanoi Scrutinizes the Past: The Marxist Evaluation of Phan Boi Chau and Phan Chu Trinh," *Southeast Asia*, vol. 1, No. 3(Summer 1971), pp. 243-254.

24) 판 쭈 찐의 생애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그의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 최근 출판된 것은 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 준다. Nguyen Q. Thang, *Phan Chau Trinh--cuoc doi va tac pham* (판 쩌우 찐--생애와 작품)(Thanh Pho Ho Chi Minh, 1987; Hanoi, 1992). 판 쭈 찐은 판 쩌우 찐(Phan Chau Trinh)이라고도 불리우다.

세기로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발달했던 국내 상업활동과 대외무역에 관한 것이다. 쇄신정책이 생산력의 증가 뿐만 아니라 물자의 원활한 대내외유통에도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연구는 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전 하노이 사학계가 베트남 사회의 발전단계를 한창 논의할 때, 이 시기에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대외무역이 활발하여 자본주의의 맹아가 엿보인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국내 상업활동과 관련된 최근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응우옌 꽝 응옥(Nguyen Quang Ngoc)의 『18,9세기 홍하델타의 상업촌락』을 들 수 있다.[25] 저자에 의하면, 상업촌락들은 농업생산량의 절대부족과 정치권력이 농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발달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 진 것으로 저자는 말하고 있다. 17,8세기에 활발했던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당시 무역의 두 중심항구였던 중부지방의 호이 안(會安, Hoi An)과 북부의 포 히엔(舖憲, Pho Hien)에 관해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국제심포지움이 열려 그 결과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26] 이들 회의에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 두 도시의 경제활동은 물론 문화적인 측면도 다루었다.

수공업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수공업 전문촌락 개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루고 있는 시대가 전근대로부터 현재에까지 걸쳐 있어 어느 특정 시대의 전문촌락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든가 수공업 발달정도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다 .

다음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조들, 특히 응우옌왕조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각도에서 깊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응우옌왕조에의 깊은 관심은 호찌민市 사회과학원이 1989년 10월 "응우옌왕조에 관한 몇가지 문제"란

25) Nguyen Quang Ngoc, *Ve mot so lang buon o dong bang Bac Bo the ky XVIII-XIX* (Hanoi: Hoi su hoc Viet Nam, 1993).

26)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ncient Town of Hoi An, *Ancient Town of Hoi An*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1); Association of Vietnamese Historians, *Pho Hien: The Centre of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XVII-XVIIIth Centuries* (Hanoi: The Gioi Publishers, 1994).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고, 작년에는 『연구역사』지가 특집으로 "19세기 전반기 역사에서의 응우옌왕조"를 다룬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27] 응우옌왕조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존속했었으므로 오늘날 사회에 끼친 문화적 유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응우옌왕조에 대한 평가는 쇄신정책 이전과 이후가 거의 상반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종전의 평가는 완전히 부정적이었다. 외세를 끌어들여 떠이썬(西山, Tay-son)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세워진 "반동적 전제군주정권"으로,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민들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침입 앞에서 쇄국정책만을 고집하여 마침내는 베트남의 독립을 잃게 하였다는 것이다.[28]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1960-70년대 미국과의 전쟁 중에 역사연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민족해방투쟁사관이 떠이썬농민운동을 높이 평가한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은 떠이썬운동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에 응우옌왕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다는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29] 현재 베트남 사학계의 응우옌왕조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세기 서구열강의 침략에 직면하여 80년 동안 자주독립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응우옌왕조의 존재의의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30] 그 뿐만 아니라 응우옌왕조의 업적들을 구체적으로 들어 민족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

27) 1989년 심포지움의 결과는 Vien Khoa Hoc Xa Hoi Tai Thanh Pho Ho Chi Minh (ed.), *Nhung van de van hoa xa hoi thoi Nguyen* (응우옌 왕조 시기의 사회, 문화에 관한 제문제) (Thanh Pho Ho Chi Minh: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1992)로 출판되었고, 응우옌 왕조를 특집으로 다룬 『연구역사』지는 *NCLS*, vol. 271(1993. 11-12)이다.

28) *Lich Su Viet Nam*, tap I, pp. 368-386.

29) Tran Bach Dang, "Nhan thuc lai van de danh gia trieu dai nha Nguyen"(응우옌 왕조시대에 대한 평가문제의 재인식), in *Nhung van de van hoa xa hoi thoi Nguyen*, p. 24.

30) Nghien Cuu Lich Su, *NCLS*, vol. 271(1993. 11-12), p. 1; Van Tao, "So bo nhan thuc ve nha Nguyen nua dau the ky XIX"(19세기 전반기의 응우옌 왕조에 대한 초보적 인식), *NCLS*, vol. 271, p. 2. 종전에는 1858년 프랑스의 다낭(Da Nang) 공격으로부터 응우옌 왕조는 이미 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를 베트남 역사에서의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응우옌 왕조가 주권을 잃는 것이 1883년과 1884년에 각각 맺어진 제일차 및 제이차 후에조약에 의해서라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고 있다. 1) 북으로 남꽌(Nam Quan, 鎭南關, 현 友誼關)에서부터 남으로 까 마우(Ca Mau)에 이르는 오늘날 베트남의 영역을 완성시켰다. 2) 이러한 영역에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통일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3) 통일국가에 필수적인 교통의 발달을 위해 官路를 건설하고 해상운송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경제면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관개수리시설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수공업에서도 조선술, 금은세공, 직조기술 등등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5) 사회적으로는, 빈민이 발생하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정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또 창고의 쌀을 풀어 배급하여 주었다. 6) 문화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니, 과거제는 교육의 보급에 기여했고, 방대한 편찬사업을 통해 이전 어느 왕조 때보다도 많은 전적이 출판되었다.[31] 응우옌왕조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다방면에 걸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현재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농업에서의 개간사업과 관개수리에 관한 것이다.[32] 이는 아마도 현정부가 농업생산의 증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종래의 편견에서 벗어나 응우옌왕조를 새롭게 평가하려는 노력은 프랑스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즉 왕조의 성립에서 그들의 원조가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33]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사실이기에 별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평가의 노력만은 인정해 줄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응우옌왕조의 독립상실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정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판 타인 잔(潘淸簡, Phan Thanh Gian)이 1867년 남부 3성을 프랑스에 넘겨 준 것은 賣國이 아니라 당시 상

31) Van Tao, 위의 논문, pp. 2-4; Vu Minh Giang, "State and Society during the Nguyen Times," A paper presented to the 34th ICANAS Conference Hongkong (August 1993). 이전 하노이 사학계의 공식적인 견해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베트남 영토의 통일은 떠이썬시기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 한편 응우옌왕조 치하에서 이루어진 토지개간은 농민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Lich Su Viet Nam*, tap I, pp. 343-346, 376-378.

32) 『연구역사』 274호(1994. 5-6)는 응우옌왕조시대의 토지개간과 관개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33) Tran Van Giau, "Vai nhan xet ve thoi nha Nguyen," in *Nhung van de van hoa xa hoi thoi Nguyen*, p. 20.

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그는 오히려 애국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34]

이전 왕조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16세기에 막 당 중(莫登庸, Mac Dang Dung)이 세운 막씨정권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막氏는 레왕조를 찬탈한 "僞朝"로 간주되었고, 하노이 사학계의 견해 역시 막씨정권이 하나의 봉건군벌집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막씨는 자기 집안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강탈하고 왕위를 빼앗을 뿐으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음은 물론 새로운 충돌을 일으켜 나라를 내전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이다.[35]

이러한 종전의 견해와는 전혀 다르게, 현 베트남 사학계는 막씨를 정통왕조의 위치로 끌어 올려 놓고 그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막씨에 대한 평가는 금년 7월 史學院과 하이풍省 사학회가 막씨의 고향인 끼엔 투이(Kien Thuy)縣 인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졌다. 회의의 결과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연구역사』지 275호(1994. 7-8)에 실린 회의내용의 소개와 『연구역사』지 259호(1991. 11-12)에 이미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막씨정권에 대한 베트남 사학계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첫째, 16세기 초의 정치적 혼란기에 막씨의 출현은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그의 왕조는 정통성을 갖는다. 그리고 막 당 중은 쩐왕조 때 元나라에 사신으로 가 文名을 나렸다고 하는 막 딘 찌(莫挺之, Mac Dinh Chi)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둘째, 明나라에 대해 전쟁을 피하려고 유화정책을 택했지만, 영토의 완전한 보존에 실패한 것은 막씨의 가장 커다란 한계성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왕조성립 후 레왕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군주제를 확립하고, 과거제의 정기적 실시를 통해 교육을 보급시켰으며, 농지의 개간과 상공업발전에 기여한 점 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36]

---

34) Tran Van Giau, 위의 논문, p. 18. 쩐 쿠에 역시 최근 판 타인 잔을 재평가하려고 한다. Tran Khue, "Tim hieu hai bai tho dieu Phan Thanh Gian cua Nguyen Dinh Chieu"(응우옌 딘 찌어우가 판 타인 잔의 장례식에 즈음하여 쓴 두 편 詩에 대한 고찰), *NCLS*, vol. 275(1994. 7-8), pp. 20-24 참조.

35) *Lich Su Viet Nam*, tap I, pp. 288.

36) "Hoi thao khoa hoc ve vuong trieu Mac"(막왕조에 대한 과학토론회), *NCLS*, vol. 275(1994.7-8), p.95; Tran Thi Vinh, "Thiet ke nha nuoc

막씨를 추출한 다음 그와 대결했던 레왕조하에서 쓰여진 『大越史記全書』에서조차, 막씨의 지배초기에는 사회질서가 안정되었었고 경제활동도 원활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37] 레씨부흥세력과의 싸움이 없었던들 베트남사회는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지 않을가? 그런 점에서 막씨정권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려는 평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막 당 중을 막 딘 찌의 후손으로 단정하기에는 중국측 사료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38]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정치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민족의 공동체의식이나 계급갈등의 해소 등은 베트남민족 고유의 문화와도 관련지어져 주로 촌락사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서 결집점을 찾으려고 한다. 베트남의 속담에 "왕의 법은 촌락의 문전에서 멈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촌락은 그 자체의 고유한 풍속과 습관을 가진 강고한 단결체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식이나 베트남의 고유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촌락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런 결과인 것이다.

촌락공동체에 관한 연구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몇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1960-70년대에 계급투쟁의 시각에서 농민운동이 연구될 때에는 전통적 농촌사회는 공동체적 성격보다도 내부 농민들 사이에서의 토지소유의 多寡가 주요 관심거리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서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정부에서는 合作社를 강력히 추진하자, 촌락연구는 농민 사이의 대립문제로부터 전환하여 촌락의 내부구조, 농민 상호간의 협력, 촌락공유지인 公田

---

thoi Mac" (막왕조의 국가구조), *NCLS*, vol. 259(1991. 11-12), pp. 11-15; Do Duc Hung, "Vai net ve che do ruong dat thoi Mac"(막왕조기 토지제도에 관한 몇 가지 점), *NCLS*, vol. 259(1991. 11-12), pp. 16-21; Nguyen Huu Tam, "Tinh hinh giao duc thi cu thoi Mac"(막왕조기 과거와 교육에 관한 상황), *NCLS*, vol. 259(1991.11-12), pp.28-32. 응우옌 민 뜨엉(Nguyen Minh Tuong)은 막씨가 명과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무고한 인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하는 식의 견강부회적인 논조를 전개하였는데, 이점은 금년도 심포지움에서 수정된 것 같다. Nguyen Minh Tuong, "Quan he bang giao giua nha Mac va nha Minh the ky XVI"(16세기 莫-明의 邦交關係), *NCLS*, vol. 259(11-12), p. 35.

37) 陳荊和 編校, 『校合本 大越史記全書』(中) (東京: 1985), p. 840.

38) 山本達郎, 앞의 책, p. 337.

의 분배, 관개수리 및 외부권력과의 관계 등에 집중되었다.[39]

쇄신정책의 채택 이후 역사유산의 문제가 부각되자, 이제는 촌락연구도 경제적 측면인 토지문제 뿐만 아니라 촌락에 관련된 모든 분야, 다시 말해 촌락의 형태, 촌락의 성격, 촌락정치, 촌락의 풍습, 촌락과 촌락의 관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촌락의 고유성과 관련하여 촌락의 내규인 俗例나 鄕約에 대해서이다. 속례나 향약의 기원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촌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또 현대법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등등이 연구되고 있다.[40]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최근에는 지난 날 사유토지의 분포상황이라든가 상속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41] 이는 1988년 11월 각료평의회가 자산의 사

39) Nguyen Tu Chi (et al.), "The Traditional Village" (1), *Vietnamese Studies*, no. 61(Hanoi, 1980) 및 Nguyen Khac Tung (et al.), "The Traditional Village" (2), *Vietnamese Studies*, no. 65(Hanoi, 1982)는 1980년대 초 촌락연구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 두 권은 합본되어 *The Traditional Village in Vietnam* (Hanoi: The Gioi Publishers, 1993)으로 재발행되었다.

40) 속례 및 향약에 관한 최근의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Vu Duy Men, "Gop phan xac dinh thuat ngu 'Khoan uoc', 'Huong uoc'(款約과 鄕約이란 용어의 정의), *NCLS*, vol. 246-247(1989), pp.77-83; Van Tao, "Pha luat Viet Nam trong lich su va di san cua no"(역사에서의 베트남법과 그 유산), *NCLS*, vol. 256(1991. 5-6), pp.14-41; Vu Duy Men, "Nguon goc va dieu kien xuat hien huong uoc trong lang xa o dong bang, trung du Bac Bo"(베트남 북부지방에서 향약의 기원과 출현조건), *NCLS*, vol. 266(1993. 1-2), pp. 49-57; Diep Dinh Hoa, "Le lang va anh huong cua no doi voi phap luat hien dai"(향약과 그것이 현대법에 끼친 영향), *NCLS*, vol. 272(1994. 1-2), pp. 1-11. 현재 수집된 20세기 향약들의 목록이 편찬된 것도 이러한 향약연구의 일환이다. Vien Thong Tin Khoa Hoc Xa Hoi (ed.), *Thu Muc Huong Uoc Viet Nam Thoi Ky Can Dai* (Hanoi, 1991). 필자의 저서인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Seoul, 1990)이 베트남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최근 베트남어(*Luat va xa hoi Viet Nam the ky XVII-XVIII*, Hanoi, 1994)로 번역된 것 역시 전통법을 통해 베트남의 가족제도와 고유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41)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다음의 두 편 논문을 들 수 있다. Cao Van Bien, "Tinh hinh chia gia tai ruong dat o Nam Dinh

적소유, 상속, 양도를 인정한 결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가족제도, 촌락수호신에 대한 제사, 농업촌락과 수공업촌락 및 상업촌락의 상호연관성 역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들이다. 이런 관심 때문에 漢喃院(Vien Han Nom)에 소장된 鄕約, 家譜(우리의 족보), 地簿, 神勅, 碑記들이 정리, 번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이들 자료의 새로운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촌락단위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베트남 민족문화의 고유성격을 밝히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 중 몇몇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나 수준은 아직 미지수에 속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구의 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상과 종교의 평가에서도 베트남 역사학계의 전환은 뚜렷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교에 대한 평가의 변화다. 지난날 베트남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은, "유교가 북방침략자와 베트남 봉건계급의 통치의 무기였다고 하는 점이 우선 강조되고, 그 잔재가 생산관계혁명, 기술혁명 및 사상과 문화혁명의 수행에 여러가지로 장애가 됨으로, 그 일소가 과제"라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봉건시대에 민족해방투쟁을 담당해 민족적 영웅으로 된 애국적 儒者에 대해서도, 그들 사상의 적극적 요소는 유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침에 대한 민족의 투쟁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라는 견해가 피력되었다.[4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교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대세는 오히려 베트남 전통사회에 끼친 유교의 영향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 3월 호찌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개

(1930-1945)"(1930-1945년대 남딘지방에서 가족토지의 분할상황), *NCLS*, vol. 270(1993. 9-10), pp. 24-28; Nguywn Duc Nghinh, "Tinh hinh phan phoi ruong dat tu huu o mien dong Thai Binh vao nhung nam cuoi the ky XVIII-dau the ky XIX"(18세기 말, 19세기 초의 타이 빈省 동부지방의 사유토지 분포상황), *NCLS*, vol. 275(1994. 7-8), pp. 25-31.

42) 今井昭夫, "近年のベトナムにおけるベトナム儒教研究," 『東京外國語大學論文集』 42號(1991), pp. 295-296, 300.

최되었던 국제심포지움에 제출된 많은 베트남 학자들의 논문이 호찌민과 유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대변된다. 이들 논문의 요지는, 호찌민은 어려서 유교의 소양을 쌓았고 그러한 소양이 뒷날 그가 마르크시즘을 수용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43] 유교에 대한 평가의 전환 역시 쇄신정책의 결과였다.

도이머이정책 도입 이후의 유교에 대한 긍적적인 시각은 우선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비롯해 신흥공업국가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모두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임에 주목한 것이다. 두번째 관심은 베트남 사회에 끼친 유교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는 이상 이에 의거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과 윤리의 제반문제를 해결하자는 견지에서 출발하고 있다.[44] 세번째는 쇄신정책의 개방적인 측면과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사회주의만을 고집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의 "창조적 적용"을 위해 유교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게 된 때문이다. 베트남 공산주의에는 유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이미 1960년대에 제기되었었으나,[45] 그 동안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받아 들여지지 않다가 쇄신정책의 채택 이후 전통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최근 공산주의의 몰락은 두 이념의 결합을 더욱 강조하도록 만들었다. 이리하여 1991년 6월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이즘과 동시에 유교적 색채를 띤 호찌민사상이 당의 사상적 기초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유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변화와 관심의 증가는, 베트남 유학연구의 제1인자라고 하는 쩐 딘 흐어우(Tran Dinh Huou)교수의 논문, "동아시아의 길과

43) 坪井善明, "ベトナムにおける儒教," 『思想』 No. 792(1990. 6), pp. 163-164.

44) 坪井善明, 앞의 논문, p.165; Tran Dinh Huong, "Confucianism Re-evaluated in Vietnam," *Vietnamese Studies*, vol. 111(1994), pp. 81-84; Ta Ngoc Lien, "Can Confucianism be put to avail in the modernisation of the Country," *Vietnamese Studies*, vol. 111(1994), pp. 92-96. 영문 두 편중, 앞의 글은 1992년, 뒤의 글은 1994년에 각각 베트남어로 발표되었던 것들이다.

45) Nguyen Khac Vien, "Confucianisme et Marxisme au Vietnam," *Le Pensée*, vol. 105(1962). 이 논문의 영역은 Nguyen Khac Vien, *Traditiona and Revolution in Vietnam* (Berkeley: Indochina Resource Center, 1974)에 수록되어 있다.

베트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재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이 논문을 토대로 1989년 1월 사회학원에서 "우리의 新事業에 있어 傳統과 現代"란 주제의 연구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열띤 토론에서 극명히 표출되었다.[46] 호어우 교수는, 베트남이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아시아문명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까지의 사회주의건설에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타 동아시아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유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하루 빨리 근대화를 이루해야 한다는 뜻으로 논지를 펴고 있다. 토론의 참가자들은 유교가 장기간에 걸쳐 베트남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도, 다른 일면 베트남사회에는 동남아시아적 요소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유교의 문제로, 이를 어떻게 계승 또는 극복할 것인가에 촛점이 두어진 인상이다. 이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유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촌락단위로 피지배계층인 농민들이 유교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지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믿는다.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막연히 유교의 영향을 논한다면 자칫 피상적으로 흘러 현재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필자가 아는한 행해진 것이 별로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을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베트남의 왕조는 레왕조와 응우옌왕조였는데, 1990년 이후 『연구역사』지에 전자의 유교문제를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없는가 하면 후자에 관한 것이 겨우 한 편 눈에 뜨일 뿐이다.[47] 그나마 이 논문도 그 내용이 지극히 소략하다. 여하튼 이 논문의 필자에 의하면, 베트남 유교는 응우옌왕조에 이르러 학문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하나의 공통된 예의, 심리, 문화, 생활관습을

46) 坪井善明, 앞의 논문, pp. 173-174; 今井昭夫, 앞의 논문, pp. 295-296.

47) Ta Ngoc Lien, "Vai net ve vai tro, dac diem cua Nho giao thoi Nguyen nua dau they ky XIX"(19세기 전반 응우옌왕조기 유교의 역할과 특징에 관한 몇가지 점), *NCLS*, vol. 271(1993. 11-12), pp. 32-36.

심어 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선 유교의 봉건성은 시대에 뒤진 것으로 사회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였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덧붙이고 있다. 유교에 대한 그의 이러한 양면적인 생각은 베트남 학계가 유교의 평가를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톨릭에 대한 역사학계의 태도 또한 쇄신정책에 의해 변화되었다. 지난 날 베트남의 순교자 117인이 1988년 교황청에 의해 성인품에 올려지는 것을 계기로 『연구역사』지는 베트남 가톨릭에 대한 특집을 꾸몄다.[48]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으로 보아 편집자의 의도는, 과거에 가톨릭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침략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순수종교활동에만 전념하면서 정치적 역할은 하지 않았으면 싶다는 것이었다. 아니 보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이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었으니 그들도 적극 조국건설에 참여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호찌민 주석이 기독교를 포용하여, 主에의 봉사와 祖國에의 봉사를 대립관계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글은 이러한 의도를 여실히 보여 주고는 것이다.

사실 이 특집호에 실린 논문이나 이후 발표된 글들에서는 프랑스 선교사와 베트남 신자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자를 침략의 선봉으로, 후자를 그 앞잡이로 보아 가톨릭교도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해 왔었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에서는 베트남 신자들 중에는 조국의 근대화에 노력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의 침략에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49] 물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술한 베트남인들 사이의 상호협력 내지는 단결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쇄신정책 이후 불교와 관련하여서는 『베트남佛教史』의 출판이 주목할 만하

48) *NCLS*, vol. 238-239(1988).

49) Chuong Thau, "Nhung guong mat cong giao Viet Nam trong su nghiep dau tranh xay dung va bao ve dat nuoc thoi can dai"(근대에 국가를 건설하고 보호하는 일에서 귀감이 되는 베트남 가톨릭교도), *NCLS*, vol. 238-239 (1988), pp. 55-60; Dinh Tran Duong, "Nhung hoat dong cuu nuoc cua dong bao thien chua giao o Nghe Tinh dau the ky XX"(20세기 초 응예-띤지방에서 천주교동포의 구국활동), *NCLS*, vol. 275(1994. 7-8), pp. 25-31

다.[50] 베트남 사학계가 불교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정부의 종교탄압에 의해 많은 촌락의 사원이 창고로 사용되는 상황하에서 불교연구는 자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하노이 학계에 의해 전례없이 전시대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단행본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우기 이 책은 개혁의지와 같은 정치적 복선도 없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된 점이 높이 살 만하다.

쇄신정책은 그 밖에 이웃나라들에 관한 역사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사의 경우는 시각의 차이보다 관심의 변화였다. 일본사, 특히 그 중에서도 17세기 네덜란드와의 접촉이라든가 명치유신과 같은 서구와의 교류 및 개혁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51] 지난날 일본관계 글들은 주로 東遊運動이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베트남점령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생각할 때 쇄신정책의 영향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사에의 관심은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도요다재단 등의 적극적인 연구지원에도 힘입는 바가 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학계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비교사적인 견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구인력이 없어 관심에 그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아 왔듯이, 베트남 역사학계는 당의 도이머이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역사학계의 주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쇄신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쇄신정책이

---

50) Nguyen Tai Thu (ed.), *Lich Su Phat Giao Viet Nam* (Hanoi: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1988). 이 책은 영문판으로도 출판되었다. Nguyen Tai Thu (ed.), *History of Buddhism in Vietnam* (Hanoi: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1992).

51) 『역사연구』지에 최근 발표된 다음의 논문들은 일본사연구의 경향을 잘 보여 준다. Hoang Minh Hoa, "Truyen thong va hien dai cua Nhat Ban tu Minh Tri duy tan den nay"(명치유신으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전통과 현대), *NCLS*, vol. 269(1993. 7-8), pp. 82-87; Hoang Minh Hoa, "Tu hien phap Minh Tri den hien phap 1946 cua Nhat Ban"(명치헌법으로부터 1946년 헌법까지), *NCLS*, vol. 272(1994. 1-2), pp. 52-61; Nguyen Van Kim, "Nguoi Ha Lan--Nhung nam dau o Nhat Ban"(화란인--일본에서의 첫 몇해), *NCLS*, vol. 275(1994. 7-8), pp. 54-59.

허용한 범위 내에서나마 조금은 자유스럽게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연구의 내용도 쇄신정책의 정신과 전혀 무관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 역사학계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같다. 하나는 과거역사에서의 사회경제적인 발전 내지는 개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화유산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과거에도 연구가 행해졌었으나 이를 훨씬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호 꾸 리, 응우옌 쯔엉 또, 판 쭈 찐 등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는 과거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베트남 역사 발전에 장애요소로 간주된 때문에 별달리 많은 연구가 없다가 이제 새롭게 평가된다는 의미에서 앞의 경우보다 역사학계의 변화는 크다고 하겠다. 응우옌 왕조, 촌락사회, 유교 및 가톨릭 등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이에 속한다.

과거에 연구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적극적 평가든가 또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역사유산의 재해석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쇄신정책이 역사연구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종래 호 꾸 리에 관한 평가는 주로 정치, 경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는 그 연구가 법률, 예술, 건축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또 응우옌왕조를 떠이썬운동과 관련짓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나 마르크시즘에 의해 유교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던 태도의 전환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로니칼하게도, 새로운 해석들의 많은 부분은 하노이 사학계가 맹렬히 공박하던 1975년 이전의 사이공 사학계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응우옌 왕조를 새롭게 평가했다고 하는 반 따오의 앞의 논문이, 1928년 첫 출판된 후 사이공 학자들 사이에서 고전으로 여겨지던 쩐 쫑 낌(Tran Trong Kim)의 『越南史略』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입증된다.[52] 여하튼 이러한 변화는, 제7차 당대회가 쇄신정책 하에서의 올바른 역사연구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事實을 直視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라는[53] 정신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

52) 반 따오는 Tran Trong Kim, *Viet Nam Su Luoc* (Saigon: Nha xuat ban tan viet, 1951)을 인용하고 있다.

53) Nghien Cuu Lich Su, "Di san lich su," *NCLS*, vol. 232-233, p. 1.

그러나 다른 한편 역사학계는 쇄신정책에 영합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한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호 꾸 리의 개혁을 사료에 근거하지 않고 현재의 쇄신이라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재인식하려고 한다. 이처럼 어떤 전제하에서 역사적 사실을 본다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호 꾸 리의 재평가에서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측면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역사학계가 당의 관심사에만 매달릴 때는 그 해석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상 중요한 다른 과제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학문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게 된다. 베트남 역사학계가 토지제도와 같은 특정 부문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야에서는 세계학계의 수준을 밑도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때문이다. 중월관계사, 중국문화의 수용, 서구사상의 유입과 갈등과 같은 베트남사의 주요과제가 일본이나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있고 또 훌륭한 업적도 내고 있는 반면에[54] 베트남 사학계에서는 피상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베트남 역사학계는 쇄신정책의 채택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대체적으로 보아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국제적 심포지움을 통한 외국학자들과의 직접교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응우옌왕조나 유교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연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서 그 성과는 장래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한 가지 문제는 베트남 역사학계가 어떻게 黨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베트남 사학계의 발전에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

54) 이들 분야에 관한 일본과 서구학계의 중요한 저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山本達郎 編, 앞의 책; Keith Taylor,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Alexander Woodside,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Nguyen and Ch'ing Civil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71); Ralph Smith, *Viet-Nam and the We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David Marr, *Vietnamese Tradition on Trial, 1920-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참 고 문 헌

Association of Vietnamese Historians. *Pho Hien: The Centre of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XVII-XVIIIth Centuries*. Hanoi: The Gioi Publishers, 1994.

Cao Van Bien. "Tinh hinh chia gia tai ruong dat o Nam Dinh(1930-1945)." *NCLS*, vol. 270(1993. 9-10).

Chuong Thau. "Nhung guong mat cong giao Viet Nam trong su nghiep dau tranh xay dung va bao ve dat nuoc thoi can dai." *NCLS*, vol. 238-239(1988).

Do Duc Hung. "Vai net ve che do ruong dat thoi Mac." *NCLS*, vol. 259(1991. 11-12).

Duiker, William. "Hanoi Scrutinizes the Past: The Marxist Evaluation of Phan Boi Chau and Phan Chu Trinh." *Southeast Asia*, vol. I, no. 3(Summer 1971).

Hoang Hong. "Mot so van de lich su su hoc." (1994년 하노이대학 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요약문).

"Hoi thao khoa hoc ve vuong trieu Mac." *NCLS*, vol. 275(1994. 7-8).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ncient Town of Hoi An. *Ancient Town of Hoi An*.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1.

Nghien Cuu Lich Su. "Di san lich su voi diem xuat phat di len chu nghia xa hoi cua chung ta." *NCLS*, vol. 232-233(1987. 1-2).

Nguyen Canh Minh. "Vay y kien xung quanh van de danh gia Ho Quy Ly." *NCLS*, vol. 264(1992. 9-10).

Nguyen Huu Tam. "Tinh hinh giao duc thi cu thoi Mac." *NCLS*, vol. 259(1991. 11-12).

Nguyen Khac Vien. *Tradition and Revolution in Vietnam*. Berkeley: Indochina Resource Center, 1974.

Nguyen Minh Tuong. "Quan he bang giao giua nha Mac va nha Minh the ky XVI." *NCLS*, vol. 259(1991. 11-12).

Nguyen Q. Thang. *Phan Chau Trinh--cuoc doi va tac pham*. Thanh Pho Ho Chi Minh, 1987.

Nguyen Quang Ngoc. *Ve mot so lang buon dong bang Bac Bo the ky XVIII-XIX*. Hanoi: Hoi su hoc Viet Nam, 1993.

Nguyen Tai Thu. *Lich Su Phat Giao Viet Nam*. Hanoi:Nha xuat ban khoa hoc xa hoi, 1988.

Nguyen Tu Chi (ed.). *The Traditional Village in Vietnam*. Hanoi: The Gioi Publishers, 1993.

Phan Huy Le. "Cai cach cua Ho Quy Ly va su that bai cua trieu Ho." *NCLS*, vol. 264(1992. 9-10).

Phung Huu Phu. "Cong cuoc doi moi va nhung van de dat ra doi voi su hoc." *NCLS*, vol. 258(1991. 9-10).

Tertrais, Hugues. "Un état des recherches sur l'histoire du Vietnam." *Vingtième Siecle: revue d'histoire*. No. 40(Oct.-Dec. 1993).

Thayer, Carlyle A. "Political reform in Vietnam: Doi Moi and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Tran Bach Dang. "Nhan thuc lai van de danh gia trieu dai nha Nguyen." in *Nhung van de van hoa xa hoi thoi Nguyen*. Thanh Pho Ho Chi Minh, 1992.

Tran Dinh Huong. "Confucianism Re-evaluated in Vietnam." *Vietnamese Studies*, vol. 111(1994).

Tran Khue. "Tim hieu hai bai tho dieu Phan Thanh Gian cua

Nguyen Dinh Chieu." *NCLS*, vol. 275(1994. 7-8).

Tran Thi Vinh. "Thiet ke nha nuoc thoi Mac." *NCLS*, vol. 259(1991. 11-12).

Tran Van Giau. "Vai nhan xet ve thoi nha Nguyen." in *Nhung van de van hoa xa hoi thoi Nguyen*. Thanh Pho Ho Chi Minh, 1992.

Truong Ba Can. *Nguyen Truong To-con nguoi va di thao*, tap I-III. Thanh Pho Ho Chi Minh: Trung Tam Nghien Cuu Han Nom, 1991.

Truong Huu Quynh. "Nhin lai van de Ho Quy Ly trong lich su." *NCLS*, vol. 264(1992. 9-10).

Uy ban khoa hoc xa hoi Viet Nam. *Lich Su Viet Nam*, tap I-II. Hanoi, 1971 & 1989.

Van Tao. "Phat luat Viet Nam trong lich su va di san cua no." *NCLS*, vol. 256(1991. 5-6).

Van Tao. "Tu Ho Quy Ly, nhin lai mot so cai cach trong lich su." *NCLS*, vol. 264(1992. 9-10).

Van Tao. "Nguyen Truong To, nguoi mo dau cho mot dong yeu nuoc co xu huong canh tan o thoi can dai." *NCLS*, vol. 265(1992. 11-12).

Van Tao. "So bo nhan thuc ve nha Nguyen nua dau the ky XIX." *NCLS*, vol. 271(1993. 11-12).

Van Tao & Nguyen Quang An (eds.). *Ban Van Su Dia(1953-1959)*. Hanoi: Vien Su Hoc Viet Nam, 1993.

Vien Khoa Hoc Xa Hoi Tai Thanh Pho Ho Chi Minh (ed.). *Nhung van de van hoa xa hoi thoi Nguyen*. Thanh Pho Ho Chi Minh: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1992.

Vien Khoa Hoc Xa Hoi & So Van Hoa Thong Tin. *Nguyen Truong To voi van de canh tan dat nuoc*. Thanh Pho Ho Chi Minh:

Trung Tam Nghien Cuu Han Nom, 1992.

Vien Thong Tin Khoa Hoc Xa Hoi (ed.). *Thu Muc Huong Uoc Viet Nam Thoi Ky Can Dai*. Hanoi, 1991.

Vu Duy Men. "Gop phan xac dinh thuat ngu 'khoan uoc', va 'huong uoc'." *NCLS*, vol. 246-247(1989).

Vu Duy Men. "Nguon goc va dieu kien xuat hien huong uoc trong lang xa o dong bang, trung du Bac Bo." *NCLS*, vol. 266(1993, 1-2).

Vu Minh Giang. "Thu nhin lai nhung cai cach kinh te cua Ho Quy Ly." *NCLS*, vol. 253(1990. 11-12).

Vu Minh Giang. "State and Society during the Nguyen Times." A paper presented to the 34th ICANAS Conference (Hong kong, 1993).

Whitmore, John K. *Vietnam, Ho Quy Ly, and the Ming(1371-1421)*.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 Studies, 1985.

今井昭夫. "近年のベトナムにおけるベトナム儒教研究." 『東京外國語大學論文集』 42號(1991).

坪井善明. "ベトナムにおける儒教." 『思想』 No. 792(1990. 6).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 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1975.